

勞 動 經 濟 論 集  
第36卷 第2號, 2013. 8, pp.1~36  
© 韓 國 勞 動 經 濟 學 會

근로자의 이질성과 자영업 선택에 관한 실증분석\*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을 중심으로 -

김 우 영\*\*

본 연구는 임금함수 추정으로부터 얻어진 잔차, 즉 보이지 않는 이질성이 자영업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Joon and Wadensjo (2013)에 따라 이 잔차를 개인 능력의 대리변수로 간주하고, 과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는지, 아니면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를 한국노동패널 1-11차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영업 진입확률이 높지만, 남녀를 구분할 경우 이러한 U자형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1998-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으며, 능력이 높은 사람이 대체로 자영업 성과도 좋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보이지 않는 이질성, 자영업 선택

논문 접수일: 2013년 5월 14일, 논문 수정일: 2013년 7월 14일, 논문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7일

\*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연구년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을 밝힌다. 초고에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공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kwy@kongju.ac.kr)

## I. 서론

누가 자영업자가 되는가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영업자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은 임금근로자로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면, 자영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Plougmann & Buhl 1998).

기존의 국내외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측면(성, 학력, 혼인 여부, 위험기피, 재산, 경기변동 등)에서 자영업의 선택을 분석하여 왔는데, 최근 근로자의 능력과 자영업 선택과의 관계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Lazear (2005)는 자영업자(기업가)가 되는 사람은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보다는 다방면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론과 실증적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Poschke (2008)는 자영업 비중과 교육수준은 U자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를 통해 자영업자가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들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Lechmann and Schnabel (2012)와 Joonas and Wadensjö (2013) 등을 통하여 재확인되고 있다.

한편, 자영업자의 이질성은 여성의 경우에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Budig(2006)는 여성의 경우, 전문직종 자영업자와 비전문직종 자영업자 사이에 자영업을 선택하는 동기나 성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전문직종 여성 자영업자는 자신의 경력발전을 위해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데 반하여, 비전문직종 여성 자영업자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문직종 여성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생존기간(duration) 면에서 비전문직종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에서도 자영업자가 능력, 학력, 소득 측면에서 이질적이라는 것을 보이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금재호·조준모 (2000)는 비취업자에서 자영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주로 학력수준이 낮거나 부모가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주로 교육수준과 임금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승렬 (2008)은 낮은 소득분위의 임금근로자인 경우 고용주로 이전하는 가능성이 낮음을 보이면서 만일 임금이 생산성과 능력을 대표한다면 고용주로 전환하는 사람에 비하여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나 능력이 낮은 사람일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김우영(2009)은 자영업자의 소득분포가 임금근로자의 소득분포보다 더 넓으며, 높은 소득계층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은 반면, 낮은 소득계층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오히려 자영업자를 초과함을 보이고 있다. 이병희(2012)는 저소득계층에 속한 임금근로자가 주로 자영업을 선택하고, 자영업에서 이탈한 사람들 역시 저소득계층의 임금근로자로 이전하는 악순환을 밝히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능력 측면에서 이질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이고는 있지만 이질성의 존재를 확연하게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몇몇 연구에서 주로 ‘임금’을 ‘능력’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자영업자의 성격을 판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임금의 차이’는 능력뿐 아니라 연령, 학력, 혼인 여부, 산업, 직업 등 다른 많은 요인의 차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연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는지, 아니면 능력이 낮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그 둘 다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보다는 이들 요인들을 제거한 새로운 측정 수단이 필요하다.

최근 Joon and Wadensjo (2013)는 임금 자체가 아닌 임금함수의 잔차(residual)를 이용하여 과연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자가 되는지를 분석하였는데 스웨덴 남성의 경우 능력이 높은 계층과 능력이 낮은 계층 모두에서 자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들은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임금함수의 잔차를 반드시 근로자의 능력으로 보기는 어렵지만<sup>1)</sup>, 이러한 해석은 노조와 비노조의 자기선택(self-selection) 문헌에서부터 최근 미국의 임금불평등의 분해를 시도하는 연구 등에서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Lee (1978)와 Abraham and Faber (1988) 등은 임금함수의 잔차를 보이지 않는 능력(unobservable ability)이나

1) 임금함수의 잔차를 기업과 개인의 일궁합의 질(matching quality)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함수의 잔차를 개인의 관찰되지 않는 능력으로 간주하고, 본문에서는 편의상 이를 ‘능력’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임금함수의 잔차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Joon and Wadensjo (2013)을 참조하기 바란다.

숙련(skill)으로 해석하며 이들이 노조 선택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Juhn, Murphy and Pierce (1993)와 Lemieux (2006) 역시 임금함수의 잔차를 관찰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해석하면서 임금불평등을 분해하고 있다.

본 연구는 Joon and Wadensjo (2013)가 사용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능력 면에서 이질적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능력과 자영업 진입이 U자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의 자영업 연구의 영역을 확장할 뿐 아니라, Joon and Wadensjo (2013)의 연구 결과가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두 가지 점에서 이들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포함시켰다.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자영업 비중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자영업 비중은 16%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sup>2)</sup> 따라서 능력과 여성 자영업의 선택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여성을 표본에 포함시킴으로써 본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둘째, 두 기간 사이의 자영업 진입에 국한하지 않고, 1998~2008년 사이 자영업자의 이질성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도 분석하였다. 여기서 얻어진 결과는 능력 측면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성격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분석방법과 자료의 기술통계 및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Ⅲ장은 패널 자료에 기초하여 자영업 진입확률함수를 전체 근로자, 남성, 여성에 대해서 각각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순수 자영업자로 구분한 경우와 1998~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 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도 분석한다. 제Ⅳ장은 능력과 자영업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제Ⅴ장은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그 함의를 제시한다.

2) KOSIS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여성의 자영업 비중은 26%에 이른다.

## II. 분석방법과 자료

### 1. 분석방법

임금함수의 잔차를 개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간주할 때 이것이 자영업 선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는 이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임금근로자로서 낮은 능력의 소유자는 자영업자로서의 자질도 낮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자영업자로서는 더 적합한 소질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자로서 높은 능력의 소유자는 자영업에서도 더 높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함수의 잔차로 나타나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자영업 선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는 실증적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이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자영업 선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틀을 Joon and Wadensjo (2013)에 기초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 자료가 필요한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우선 1차(1998년)부터 11차(2008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이웃하는 2개년도의 자료를 패널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10세트의 2년도 패널이 구축되는데 각 세트의 첫 해에 임금근로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시간당 임금함수를 추정한다.

$$\ln w = X\beta + \sum_{j=1}^T \delta_j year_j + u \quad (1)$$

위에서  $w_{it}$ 는 시간당 실질임금,  $X_{it}$ 는 성, 연령, 학력, 혼인 여부, 근속연수, 상용직 여부, 10개의 산업더미, 6개의 직종더미, 15개의 지역더미를 포함한다.<sup>3)</sup>  $year_j$ 는 연도더미로서  $j=t$ 이면 1, 아니면 0을 가진다. 식 (1)은 비농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

3) 실질임금은 CPI를 이용하여 구해졌으며,  $X_{it}$ 에 포함된 변수의 자세한 내역은 <부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며, 개인이 반복적으로 표본에 포함되기 때문에 OLS 추정치는 비효율적(inefficient)일 수 있다. 따라서 계수의 표준오차는 개인을 군집으로 하는 군집 강건성 방법(clustered robust method)으로 구해진다.

다음으로, 추정된 계수를 이용하여 잔차항( $\hat{u}_{it}$ )을 구하는데 이 잔차항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 사용된다. 즉 이 잔차항은 다른 통제변수로는 설명되지 않는 임금 부분으로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간주된다. 우리는 다시  $\hat{u}_{it}$ 를 이용하여 5분위 더미변수를 생성한다.<sup>4)</sup>

$t$  시점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은  $t+1$ 기에 세 가지 경로로 진출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즉, ①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거나, ② 자영업으로 옮기거나, ③ 비취업자가 된다. 이들 각각의 선택으로부터 얻어지는 효용을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U_{ij} = Z_i \beta_j + \sum_{k=1}^5 \alpha_{jk} pl_{ik} + v_{ij}, \quad i = 1, \dots, n, \quad j = 1, 2, 3 \quad (2)$$

위에서  $Z_{it}$ 는 식 (1)의  $X_{it}$ 와 동일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Z_{it}$ 에 포함된 변수들은 Jona and Wadensjo (2013)가 사용한 변수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정에 있어서는 여러 조합의 변수들을 포함시킬 것이다.  $pl_k$ 는 능력을 나타내는 5분위 더미변수이며 추정에서는 중간분위를 기준범주(base category)로 한다. 개인  $i$ 는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취업형태를 선택할 것이며 만약 식 (2)에서  $v_{ij}$ 가 극한분포(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가진다면, 임금근로자  $i$ 가  $t+1$ 기에 자영업으로 이전할 확률은 다음과 같은 다항로짓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임금근로자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기준).

$$\Pr(j=2) = \frac{\exp(Z_i \beta_2 + \sum_{k=1}^5 \alpha_{2k} pl_k + \sum_{\tau=1}^T \delta_{2\tau} year_{\tau})}{1 + \exp(Z_i \beta_2 + \sum_{k=1}^5 \alpha_{2k} pl_k + \sum_{\tau=1}^T \delta_{2\tau} year_{\tau}) + \exp(Z_i \beta_3 + \sum_{k=1}^5 \alpha_{3k} pl_k + \sum_{\tau=1}^T \delta_{3\tau} year_{\tau})} \quad (3)$$

4) 잔차항을 10분위 더미로 만들어 각각에서의 자영업 입직 비중을 구해 보아도 그 패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추정에 있어서 이들 분위변수와 연도더미의 교차항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형을 간략화시키기 위해서 다항로짓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는 5분위 더미를 사용하였다.

2개년 사이의 이행확률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식 (3)은 연도더미를 포함한다. 식 (3)의 추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이 반복적으로 표본에 포함되는 것을 고려해서 계수의 표준오차는 군집 강건성 방법(clustered robust method)으로 구해진다.

## 2. 자료 및 기초분석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부터 11차(2008년)이다. 한국노동패널 조사(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는 노동관련 가구패널 조사로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는 자료이다. KLIPS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5,000가구를 대상으로 패널 표본을 구성하고 그들에게 1년에 1회씩 가구원의 인적 사항, 가구의 소득 및 소비, 개인의 경제활동 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sup>5)</sup>

앞 장의 식 (1)과 식 (3)의 추정을 위해 우리는 이웃하는 2개년도로 패널을 구축하였고, 첫 해에 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을 추출하여 그 다음 기에 어떤 취업형태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추정에 사용된 변수와 기초통계는 <부표 1>에 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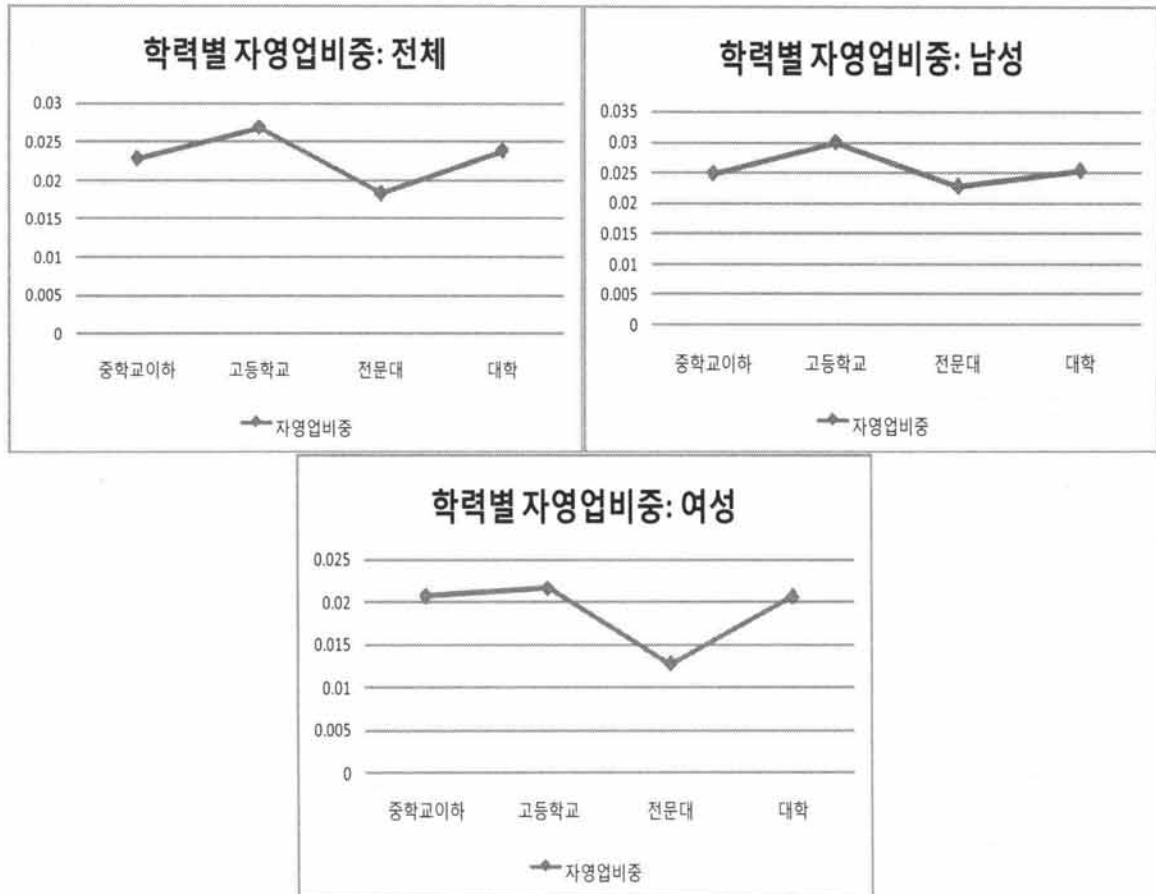
본격적인 추정에 앞서 우선 자영업자가 학력, 임금, 그리고 능력 면에서 어느 정도 이질적인지를 살펴보기로 한다.<sup>6)</sup> [그림 1]은  $t$  시점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t+1$ 기에 자영업(고용주+순수자영자)으로 진입한 비중을 학력수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비중이 약 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졸업자, 중졸 이하, 전문대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보면 패턴은 비슷하지만 남성의 경우 고졸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입직 비중이 다른 학력에 비해서 확연히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고졸 임금근로자와 대졸 임금근로자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림 1]만을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Poschke (2008)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학력과 자영업 입직 사이에 U자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러한 경향이 존재한다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sup>7)</sup>

5) KLIPS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동패널 1-11차 User's Guide 참조.

6) 한국노동패널에서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정의는 통계청의 정의와 유사하다. 즉, 자영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유급 종업원의 고용 여부에 따라 고용주와 순수자영자로 구분된다.



〔그림 1〕 학력수준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입직 비중 (1998-2008, 비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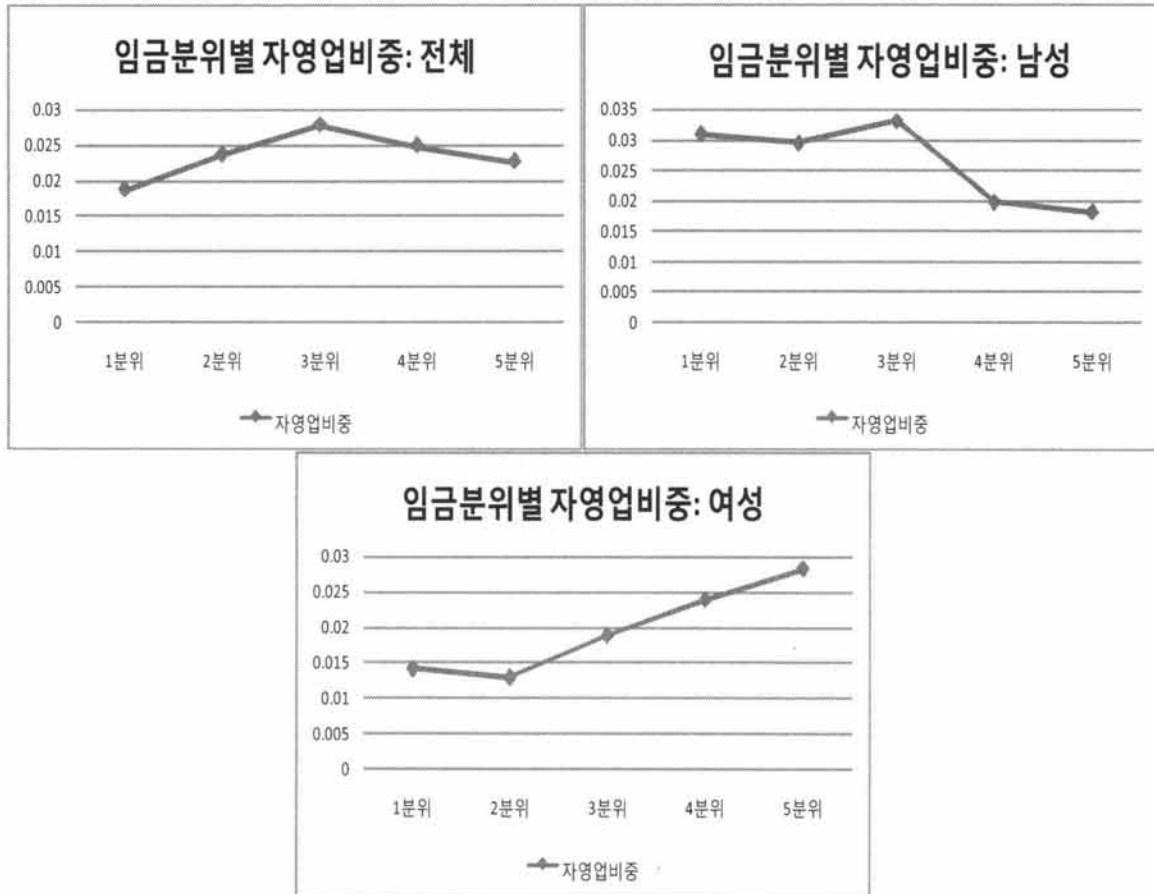


한편 임금수준에 따른 자영업 입직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는  $t$  시점에서의 시간당 실질임금을 5분위로 구분하여 그 다음 기에 자영업으로 입직한 비중을 나타낸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중간 3분위에서 가장 자영업 입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중간에서 멀어질수록 자영업 비중은 하락하여 역 U자형을 나타낸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면 상당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7) 김우영 (2009)은 경찰 자료를 이용하여 교육수준과 자영업 비중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김우영의 연구는 횡단면 자료에서 얻어진 것이고, 여기서는 한 해의 교육수준에 따라 그 다음 해의 자영업 입직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그림 2] 임금 분위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입직 비중 (1998-2008, 비농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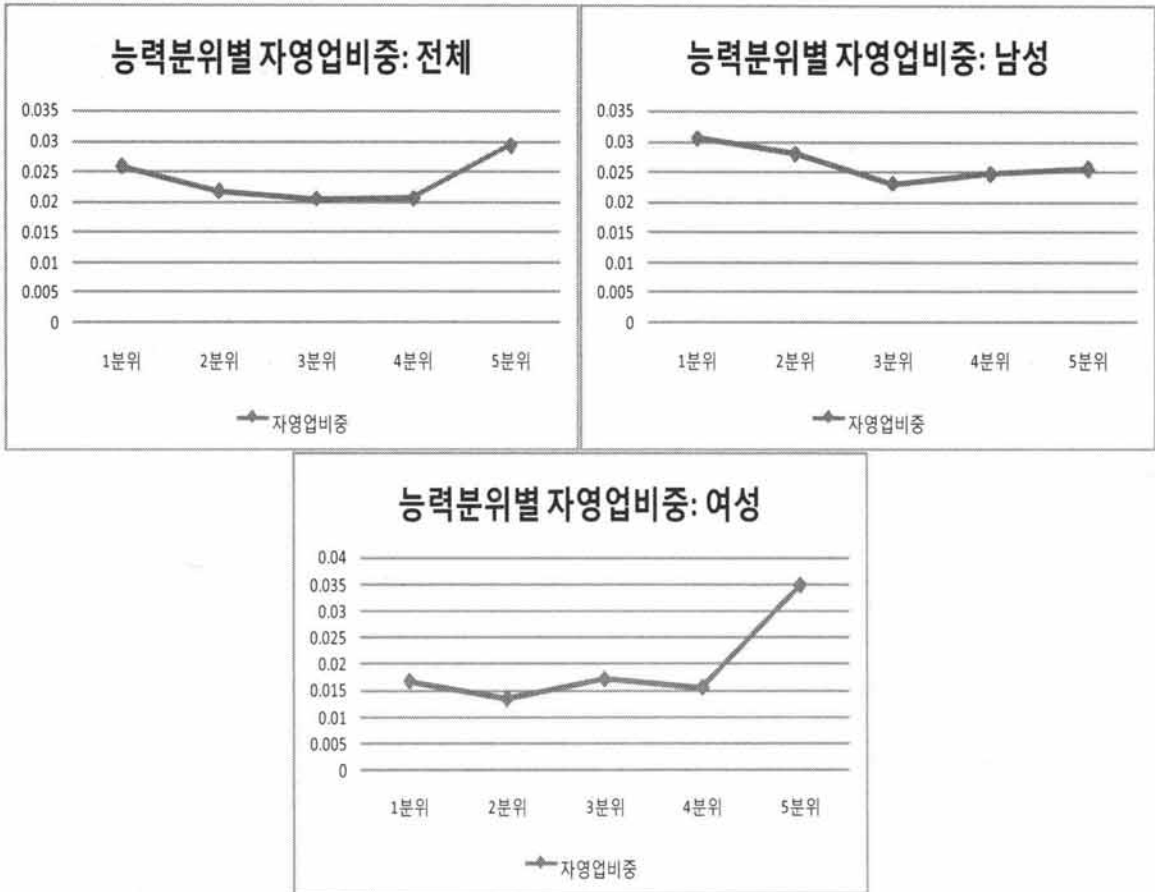


것을 알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임금을 능력의 대리변수로 본다면 남성의 경우는 능력이 낮을수록, 여성의 경우는 능력이 높을수록 자영업 선택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도 1]은 실질임금 10분위와 자영업 입직 비중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분위에 따라 다소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지만 전반적인 패턴에는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에 따른 자영업 입직 비중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서 우선 식 (1)을 추정하여 잔차( $\hat{u}_{it}$ )를 구하고 이를 5분위 구분하였다.<sup>8)</sup> 따라서 여기서 얻어

8)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는 <부표 2>에 제시된다.

[그림 3] 능력 분위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입직 비중 (1998-2008, 비농부문)



진 능력의 5분위는 임금에 미치는 많은 요인을 제거한 후 얻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임금 5분위와 구분된다. [그림 3]을 보면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비중은 U자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Joon and Wadensjo (2013)가 스웨덴 남성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얻은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본다면, U자의 자영업 진입은 뚜렷하지 않다. 남성의 경우에는 능력이 낮은 1분위에서 가장 자영업 비중이 높고, 반면 여성의 경우는 능력이 가장 높은 5분위에서 자영업 진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자영업 진입의 이질성은 성(gender)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 Ⅲ. 자영업 진입의 회귀분석

#### 1. 전체 근로자 대상 추정 결과

<표 1>은  $t$  시점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t+1$ 기에 어떤 노동시장 상태로 이 전했는지를 나타낸다. 기준은 임금근로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며, 변수의 계수는 기준 상태와 비교한 상대적 이행확률을 나타낸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변수는 능력 분위변수인데, 흥미롭게도 중위능력자에 비하여 능력이 가장 낮은 근로자와 능력이 가장 높은 근로자 계층이 자영업자로 이행하는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포함된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Joon and Wadensjo (2013)가 발견한 U자형의 패턴은 한국에서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능력이 비취업으로의 이행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능력이 낮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비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으며 능력이 높은 계층은 그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 비록 후자의 경우는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지만 모든 모형에서 일관적으로 음(-)의 부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여성, 연령, 상용직 여부, 근속 연수 등 다른 통제변수들의 계수 역시 기대되는 부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에 나타난 계수는 각 변수가 상대 확률의 로그 값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그 수치만으로 자영업이나 비취업으로 이행할 확률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식 (3)을 이용하여 능력 분위에 따라 자영업, 비취업으로 이전할 확률을 구하여 보았다. 이들 확률을 구함에 있어 <표 1>의 모형 (3)을 이용하였고, 포함된 변수 값으로는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여기서 구해지는 확률은 능력을 제외한 다른 속성은 동일하고, 능력만 차이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얻어진 확률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확률은 [그림 4]에 제시되는데, 자영업 진입확률은 U자형을, 임금근로 잔존확률은 역 U자형을, 미취업 진입확률은 감소하는 패턴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적인 임금근로자는 능력 4분위에 속할 경우 가장 낮은 자영업 진입확률을 보이며, 반면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을 확률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 진입이 가장 높은 능력 5분위는 가장 낮은 능력 4분위보다 1.4배(2.6%/1.9%) 진입확률을 보인다. 또한 능력 1분위도 능력 4분위보다 1.3배(2.5%/1.9%) 높은 자영업 진입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노동시장이행에 관한 다항로지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 대상)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임금-자영업	임금-비취업	임금-자영업	임금-비취업	임금-자영업	임금-비취업
능력 1분위	<b>0.266**</b> (0.114)	<b>0.426**</b> (0.060)	<b>0.248**</b> (0.115)	<b>0.431**</b> (0.060)	<b>0.246**</b> (0.115)	<b>0.435**</b> (0.060)
능력 2분위	0.084 (0.117)	<b>0.186**</b> (0.060)	0.070 (0.118)	<b>0.187**</b> (0.060)	0.073 (0.118)	<b>0.186**</b> (0.060)
능력 4분위	-0.089 (0.119)	-0.098 (0.063)	-0.085 (0.120)	-0.097 (0.063)	-0.086 (0.120)	-0.097 (0.063)
능력 5분위	<b>0.269**</b> (0.111)	-0.082 (0.063)	<b>0.244**</b> (0.111)	-0.070 (0.064)	<b>0.247**</b> (0.111)	-0.069 (0.064)
여성	-0.057 (0.079)	<b>0.604**</b> (0.043)	-0.245** (0.090)	<b>0.558**</b> (0.047)	-0.241** (0.090)	<b>0.564**</b> (0.047)
연령	<b>0.152**</b> (0.029)	-0.151** (0.012)	<b>0.135**</b> (0.030)	-0.153** (0.012)	<b>0.139**</b> (0.030)	-0.154** (0.012)
연령제곱	-0.002** (0.000)	<b>0.002**</b> (0.000)	-0.001** (0.000)	<b>0.002**</b> (0.000)	-0.001** (0.000)	<b>0.002**</b> (0.000)
고등학교	<b>0.271**</b> (0.104)	-0.038 (0.059)	0.153 (0.107)	-0.012 (0.061)	0.139 (0.108)	-0.001 (0.061)
전문대	0.171 (0.155)	-0.205** (0.084)	0.071 (0.161)	-0.110 (0.088)	0.050 (0.161)	-0.110 (0.088)
대학	<b>0.264**</b> (0.129)	-0.208** (0.071)	0.157 (0.148)	-0.065 (0.081)	0.150 (0.149)	-0.055 (0.081)
기혼	<b>0.216**</b> (0.103)	-0.087 (0.055)	<b>0.236**</b> (0.103)	-0.085 (0.056)	<b>0.218**</b> (0.103)	-0.090 (0.056)
상용직	-0.250** (0.090)	-0.527** (0.046)	-0.340** (0.098)	-0.536** (0.050)	-0.343** (0.098)	-0.543** (0.050)
근속연수	-0.084** (0.018)	-0.169** (0.011)	-0.081** (0.018)	-0.162** (0.011)	-0.081** (0.019)	-0.160** (0.011)
근속연수제곱	0.000 (0.001)	<b>0.005**</b> (0.000)	0.001 (0.001)	<b>0.005**</b> (0.000)	0.001 (0.001)	<b>0.005**</b> (0.000)
상수항	-6.227** (0.605)	<b>1.693**</b> (0.259)	-5.854** (0.611)	<b>1.728**</b> (0.265)	-5.882** (0.619)	<b>1.655**</b> (0.269)
산업더미	포함 X		포함 O		포함 O	
직종더미	포함 X		포함 O		포함 O	
지역더미	포함 X		포함 X		포함 O	
시간더미	포함 O		포함 O		포함 O	
log-likelihood	-13212.834		-13114.452		-13091.939	
표본수	30,055		30,055		3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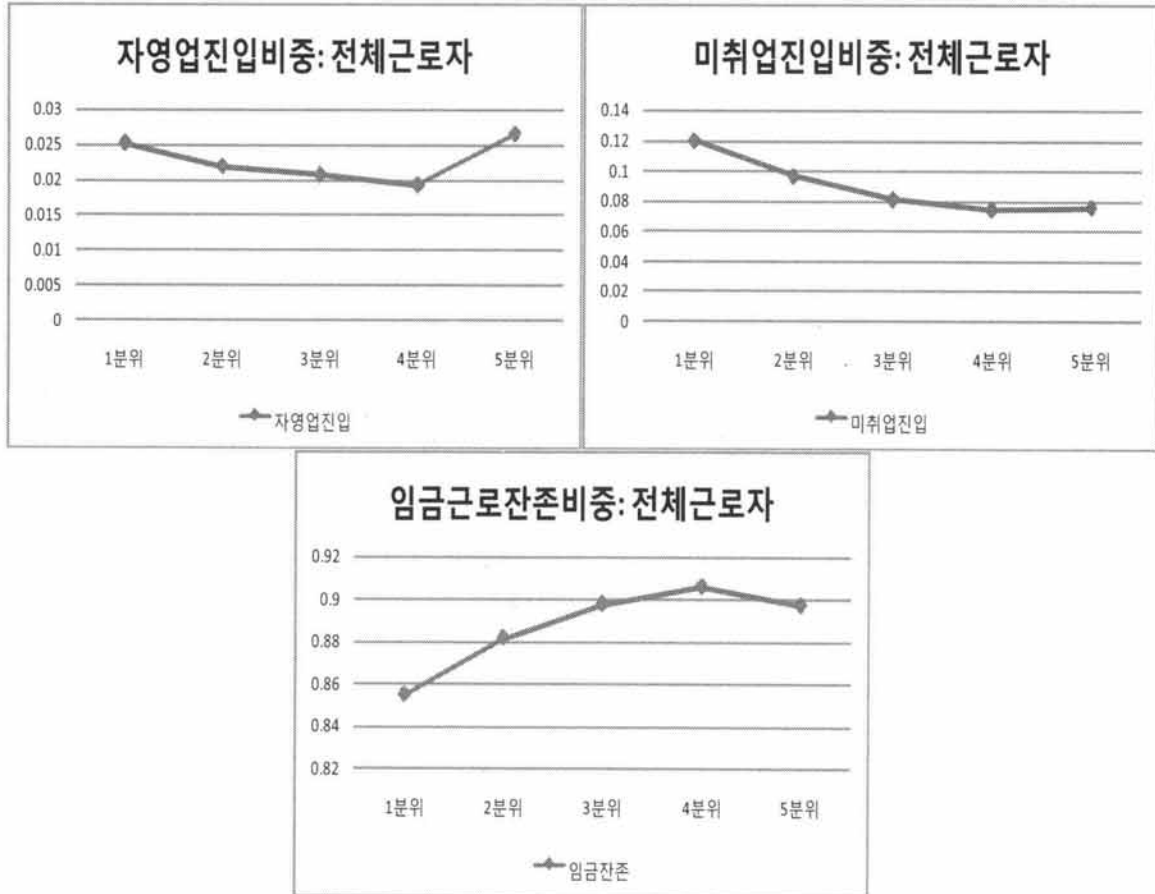
주: 산업, 직종, 지역, 연도가 포함된 결과는 요청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음.

기준 선택은 임금근로자 잔존, 기준변수는 능력 3분위, 중졸이하, 제조업, 전문직, 서울, 1998년임.

\* 90%에서 유의, \*\*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그림 4] 평균 근로자의 능력 분위에 따른 자영업, 미취업 입직 및 임금근로 잔존 비중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능력 1분위와 능력 5분위에 속하며, 이들 중 누가 자영업자로 진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자영업자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또한 다음 장에서 이루어질 성별 자영업 진입의 추정 결과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표 2>는 자영업 진입여부에 따른 능력 1분위, 5분위 근로자의 개인 특성과 일자리 관련 특성의 평균을 보여준다

능력 1분위에 속한 사람들의 임금잔차( $\hat{U}_i$ )의 평균은 -0.6인데 이는 자신과 동일한 특성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약 60% 적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능력 1분위에 속한 사람들 중 자영업으로 진입한 사람들은 동일한 특성의 다른 근로자보다 약 67%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능력 1분위 근로자 중 자영업으로

〈표 2〉 자영업 진입 여부에 따른 능력 1분위, 5분위 근로자의 특성

	1분위			t-값	5분위			t-값
	전체	자영업 진입자	차이*		전체	자영업 진입자	차이*	
임금합수 잔차	-0.603	-0.673	-0.075	-2.47	0.616	0.724	0.114	3.62
여성	0.380	0.271	-0.127	-3.55	0.375	0.471	0.099	2.56
연령	40.369	41.090	0.644	0.77	40.497	41.351	0.678	0.83
고등학교	0.378	0.387	-0.008	-0.20	0.376	0.425	0.047	1.23
전문대	0.117	0.103	-0.020	-0.82	0.125	0.046	-0.077	-4.55
대학	0.272	0.335	0.072	1.86	0.259	0.293	0.033	0.94
기혼	0.713	0.858	0.138	4.69	0.721	0.736	0.009	0.25
상용직	0.761	0.819	0.051	1.59	0.758	0.667	-0.105	-2.83
근속연수	5.480	5.045	-0.662	-1.33	5.708	3.954	-1.755	-4.60
전기수도건설	0.110	0.084	-0.013	-0.52	0.110	0.086	-0.015	-0.65
도소매	0.110	0.161	0.052	1.72	0.107	0.178	0.069	2.32
운송	0.073	0.168	0.077	2.64	0.075	0.057	-0.021	-1.20
음식료	0.043	0.065	0.022	1.08	0.042	0.034	-0.007	-0.52
금융	0.064	0.123	0.059	2.20	0.068	0.190	0.120	3.96
사업서비스	0.066	0.045	-0.014	-0.77	0.067	0.046	-0.019	-1.15
공공행정	0.071	0.039	-0.032	-2.03	0.073	0.029	-0.050	-4.08
교육	0.090	0.071	-0.032	-1.65	0.073	0.075	0.005	0.24
의료	0.057	0.032	-0.024	-1.65	0.051	0.034	-0.015	-1.07
기타산업	0.046	0.045	0.006	0.30	0.046	0.052	0.007	0.40
사무직	0.075	0.065	-0.010	-0.48	0.077	0.046	-0.032	-1.91
서비스직	0.061	0.090	0.030	1.26	0.055	0.207	0.148	4.75
판매직	0.002	0.006	0.004	0.61	0.003	0.011	0.008	1.01
숙련공	0.157	0.129	-0.020	-0.72	0.165	0.161	0.006	0.21
장치관리자	0.120	0.168	0.036	1.21	0.137	0.080	-0.058	-2.79
단순노무직	0.150	0.097	-0.046	-1.83	0.150	0.086	-0.067	-3.09
시간당 실질임금	0.458	0.464	0.007	0.37	1.655	1.753	0.109	1.08
표본수	6,011	154	-	-	6,008	170	-	-

주: \* 차이는 자영업 진입자의 평균에서 해당 분위 전체 평균을 뺀 것임.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진입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임금(약 -7%)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분위 근로자 중 자영업으로 진입한 사람의 특성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낮고, 대졸 비중은 높으며, 도소매, 운송, 금융 분야 종사자가 많은 대신 공공행정, 교육 및 의료 종사자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능력 1분위의 임금잔차는 -0.6이고 그 중 자영업으로 진입한 사람들의 임금잔차는 -0.67이기 때문에 임금근로자로서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 즉 비슷한 조건의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불만을 가지고 자영업으로 진입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해석은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자영업으로 진입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보다 약 62% 더 높은 임금을 받고, 그 중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은 72%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 따라서 임금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지만 자영업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능력 1분위에 속한 사람들 중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은 낮은 임금을 회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소질을 상대적으로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자영업으로 진입한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여성의 비중이 47%로 나타나 5분위 전체 평균 3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1분위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성인 반면, 5분위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성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임금은 동일한 조건의 다른 사람보다 72%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능력이 가장 낮은 계층과 가장 높은 계층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높다. 둘째, 하지만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더 낮은 사람이,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더 높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이전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동기는 단순히 임금측면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능력이 낮은 계층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남성이며, 능력이 높은 계층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여성이다.



## 2. 남성과 여성의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 남녀 간 자영업 진입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남녀를 구분하여 식 (1)을 추정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잔차를 5분위로 구성하여 식 (3)을 추정하였다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는 <부표 2> 참조). 따라서 여기서의 능력 5분위는 각 성(gender) 내부의 능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표 3>을 보면 남성에 있어서 능력 3분위(기준)에 비하여 능력 1분위에 속한 사람들만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다른 분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다.<sup>9)</sup> 즉, 남성의 경우 주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을 보면 그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데,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들만이 자영업 진입확률이 높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난다. 여성의 경우는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주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능력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남성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의 다른 임금근로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 비하여,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로 동일한 조건의 다른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한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자영업 진입의 U자 형태는 남성과 여성의 각 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자영업자의 이질성은 성 내부(intra-gender)에서 나타나기보다는 성 간(inter-gender)에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sup>10)</sup>

왜 남성의 경우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는지, 또 왜 여성의 경우는 그 반대인지를 한국노동패널의 정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능력과 자영업 선택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자영업자를 세분화해 볼 수는 있다. 즉, 자영업자를 고용주(유급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람)와 순수자영자(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영업을 하는 사람)로 구분하여 능력이 이들 취업형태의 선택에 어

9) 지면관계상 모형 3의 추정 결과만 제시하지만 다른 모형의 추정 결과도 유사하다.

10) <표 3>에 나타난 능력 분위의 계수를 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에 대해서 능력과 자영업 진입확률 사이에 U자 형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표 3> 성별 자영업 진입에 관한 다항로짓 추정 결과

	남 성		여 성	
	임금→자영업	임금→비취업	임금→자영업	임금→비취업
능력 1분위	0.291(0.144)**	0.391(0.092)**	-0.085(0.194)	0.426(0.082)**
능력 2분위	0.205(0.146)	0.097(0.096)	-0.198(0.203)	0.237(0.081)**
능력 4분위	-0.031(0.152)	-0.014(0.094)	-0.120(0.195)	-0.002(0.085)
능력 5분위	0.032(0.148)	-0.200(0.101)**	0.461(0.163)**	0.054(0.083)
연령	0.149(0.041)**	-0.158(0.020)**	0.131(0.046)**	-0.153(0.018)**
연령제곱	0.001(0.000)**	0.002(0.000)**	-0.001(0.001)**	0.002(0.000)**
고등학교	0.243(0.147)*	-0.109(0.088)	-0.032(0.172)	0.090(0.086)
전문대	0.210(0.200)	-0.254(0.127)**	-0.209(0.290)	0.084(0.122)
대학	0.225(0.187)	-0.175(0.112)	0.154(0.260)	0.135(0.118)
기혼	0.179(0.143)	-0.813(0.080)**	0.319(0.154)**	0.390(0.079)**
상용직	0.409(0.143)**	-0.588(0.083)**	-0.280(0.142)**	-0.464(0.063)**
근속연수	0.090(0.022)**	-0.135(0.016)**	-0.075(0.034)**	-0.162(0.014)**
근속연수제곱	0.001(0.001)	0.004(0.001)**	0.001(0.002)	0.004(0.001)**
상수항	6.070(0.863)**	2.100(0.438)**	-5.863(0.944)**	1.764(0.357)**
log-likelihood	-6495.5516		-6432.0399	
표본수	17,836		12,219	

주: 모든 추정에는 산업, 직종, 지역, 시간더미가 포함되었음. 다른 내용은 <표 1>의 주를 참조.

\* 90%에서 유의, \*\*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순수자영자보다 좀 더 우월한 취업형태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높은 능력의 사람들은 고용주를, 낮은 능력의 사람들은 순수자영자를 선택한다고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4>는  $t$ 시점의 임금근로자가  $t+1$  시점에 고용주, 순수자영자, 비취업자, 그리고 임금근로자 잔존의 4가지 취업형태로 이행하는 것을 가정하고 추정된 결과다. 우선 남성을 보면, 앞서 능력 1분위인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것은 고용주보다는 순수자영자로 이전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능력 1분위인 경우는 능력 3분위보다 고용주로 진입할 확률이 낮으며, 능력 5분위는 더 높은 진입확률을 보인다. 표의 결과는 적어도 낮은 능력의 남성근로자가 고용주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능력이 증가할수록 순수자영자 진입확률은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물론 1분위 변수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능력이 증가할수록 그 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역시 능력이 높아질수록 전반적으로 고용주 선택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여성의 경우는 고용주로 이동하는 사람이 전체의 0.3%에 불과하기 때문에 능력과 고용주 선택의 관계는 좀 더 많은 샘플에 기초한 추정을 통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의 경우 능력이 순수자영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지만 능력 5분위인 사람은 3분위인 사람에 비하여 순수자영자로 이행할 확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비교하여, 여성이 자영업을 선택할 경우 고용주보다는 순수자영자가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면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수준이 높은 사람이 순수자영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남성의 경우는 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이 고용주, 낮은 사람은 순수자영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순수자영자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여성일 경우 고용주보다는 순수자영자가 현실적인 창업 대안이 되기 때문이 아닌지 사료된다. 하지만 고용주에 대한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기 때문에 추후 다른 자료를 통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표 4〉 성별 고용주, 자영자 진입에 관한 다항로짓 추정 결과

	남 성			여 성		
	임금→고용주	임금→자영자	임금→취업	임금→고용주	임금→자영자	임금→취업
능력 1분위	-0.030 (0.270)	<b>0.426**</b> (0.182)	<b>0.394**</b> (0.092)	0.082 (0.534)	-0.212 (0.258)	<b>0.429**</b> (0.082)
능력 2분위	0.183 (0.254)	0.208 (0.189)	0.097 (0.096)	-0.347 (0.613)	-0.230 (0.265)	<b>0.238**</b> (0.081)
능력 4분위	0.032 (0.266)	0.009 (0.195)	-0.015 (0.094)	0.357 (0.498)	-0.272 (0.263)	-0.001 (0.085)
능력 5분위	0.058 (0.258)	-0.016 (0.193)	<b>-0.200**</b> (0.101)	0.448 (0.492)	<b>0.596**</b> (0.208)	0.054 (0.083)
해당 표본수	156(0.9%)	309(1.7%)	1,413(7.9%)	41(0.3%)	198(1.6%)	2,028(16.7%)
전체 표본수	17,790			12,138		
log-likelihood	-6580.6485			-6188.5489		

주: 추정에 포함된 통제변수는 <표 3>과 동일.

\* 90%에서 유의, \*\*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 3. 능력과 자영업 선택의 관계 변화

본 연구의 대상 기간인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자영업자의 증감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으며, 자영업자의 성격도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의 수는 증가하여 2002년 정점에 이르렀고, 2003-2004년에 신용대란으로 인한 ‘1차 구조조정’이 있었으며, 2006년 이후 ‘2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병희 2012). 여기서는 1998-2008년 사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영업자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능력 분위와 연도더미 사이의 교차항(interaction terms)을 만들고 이를 식 (3)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사람의 확률은 다음과 같다.

$$Pr(j=2) = \frac{\exp(Z_1\beta_2 + \sum_{k=1}^5 \alpha_{2k}pl_k + \sum_{\tau=1}^T \delta_{2\tau}year_{\tau} + \sum_{k=1}^5 \sum_{\tau=1}^T \gamma_{2k\tau}pl_k year_{\tau})}{1 + \exp(Z\beta_2 + \sum_{k=1}^5 \alpha_{2k}pl_k + \sum_{\tau=1}^T \delta_{2\tau}year_{\tau} + \sum_{k=1}^5 \sum_{\tau=1}^T \gamma_{2k\tau}pl_k year_{\tau}) + \exp(Z\beta_3 + \sum_{k=1}^5 \alpha_{3k}pl_k + \sum_{\tau=1}^T \delta_{3\tau}year_{\tau} + \sum_{k=1}^5 \sum_{\tau=1}^T \gamma_{3k\tau}pl_k year_{\tau})} \quad (4)$$

만약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성향이 증가한다면 능력 1분위와 연도 교차항의 계수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즉 식 (4)에서  $\gamma_{21\tau}$ 는  $\tau$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반대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증가한다면  $\gamma_{25\tau}$ 는  $\tau$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또한 1998-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 사이에 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교차항의 모든 계수가 동시에 0이 된다는 가설, 즉  $\gamma_{2k1} = \gamma_{2k2} = \dots = \gamma_{2kT} = 0$ 을 모든  $k$ 에 대해서 검증하였다.

<표 5>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식 (4)를 추정된 후 교차항의 계수만을 보고하고 있다. 표에서 1998년은 기준년도이며 그 옆에 속한 수치는 각 능력 분위변수의 계수를 나타낸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나타나는 수치는 그 해와 각 능력 분위와의 교차항에 대한 계수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계수는 1998년에 비하여 능력 분위가 자영업이나 미취업 진입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낸다.

<표 5>의 첫 번째 열에 나타난 1998년 기준년의 수치를 보면, 능력 3분위에 비하여 능력 1분위와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이전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교차항을 포함하지 않은 결과와 동일하다. 표의 마지막 두 열은 교차항의 계수가 모두 0이라는 가설에 대한  $X^2$ 의 값과 p-value를 보여준다. 능력 1분위와 연도더미 교차항의 계수가 모두 0이 된다는 가설을 90% 수준에 기각되며, 능력 5분위와 연도더미 교차항의 계수가 모두 0이 된다는 가설을 95% 수준에 기각된다. 즉, 1998-2008년 기간 동안 능력 1분위와 능력 5분위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패턴은 동일하지 않으며 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능력 1분위와 연도의 교차항을 보면 기준년도에 비하여 모두 음(-)의 계수를 가지며 특히 2001년, 2002년에는 아주 강한 음(-)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2006년 이후 음(-)의 계수도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능력 5분위와 연도더미의 교차항을 살펴보면, 이들 역시 1998년에 비하여 2003, 200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06년, 2007년에는 아주 강한 음(-)의 계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능력 1분위와 5분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능력과 자영업 진입의 U자 형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능력 면에서 동질적이 되어 감을 암시한다. 한편 능력과 비취업 진입의 관계는 1998-2008년 사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 중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진입한 추정 결과만을 요약한 것이다.<sup>11)</sup> 우선 남성을 보면, 능력과 자영업 진입과의 관계는 1998-2008년 사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X^2$  값은 모두 90% 수준에서 귀무가설( $\gamma_{2k1} = \gamma_{2k2} = \dots = \gamma_{2kT} = 0$ )을 기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관심인 능력 1분위와 5분위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능력 1분위의 계수는 2000년 초반에는 음수(-)로 나타나고 2001년에는 95% 수준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그 이후로 음수(-) 계수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2000년 초반에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감소했지만 최근에

11)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였을 경우에도 임금근로에서 비취업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교차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5〉 능력이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전체 근로자)

	임금→자영업				임금→비취업			
	능력1분위	능력2분위	능력4분위	능력5분위	능력1분위	능력2분위	능력4분위	능력5분위
1998 (기준)	0.889** (0.346)	-0.164 (0.420)	0.268 (0.375)	0.669* (0.348)	0.687** (0.193)	0.249 (0.202)	0.136 (0.199)	0.056 (0.202)
1999	-0.371 (0.556)	0.508 (0.623)	-0.147 (0.592)	-0.163 (0.546)	-0.026 (0.267)	0.024 (0.280)	-0.209 (0.282)	0.021 (0.275)
2000	-0.699 (0.545)	0.598 (0.582)	0.052 (0.560)	-0.424 (0.541)	-0.445* (0.270)	-0.028 (0.274)	-0.308 (0.278)	0.031 (0.274)
2001	-1.573** (0.530)	0.237 (0.537)	-0.276 (0.509)	-0.787* (0.487)	-0.208 (0.271)	-0.067 (0.288)	-0.363 (0.301)	-0.166 (0.294)
2002	-1.249** (0.497)	-0.204 (0.541)	-0.262 (0.495)	-0.772* (0.476)	-0.389 (0.259)	-0.323 (0.268)	-0.309 (0.273)	-0.199 (0.274)
2003	-0.860* (0.484)	-0.156 (0.565)	-0.728 (0.548)	-0.547 (0.482)	-0.469* (0.259)	-0.306 (0.271)	-0.480 (0.280)	-0.178 (0.268)
2004	-0.143 (0.471)	0.749 (0.531)	-0.095 (0.505)	0.454 (0.457)	-0.334 (0.263)	0.020 (0.273)	-0.236 (0.273)	-0.080 (0.282)
2005	-0.669 (0.565)	0.639 (0.596)	-0.450 (0.618)	-0.568 (0.572)	-0.410 (0.261)	-0.219 (0.273)	-0.324 (0.277)	-0.544 (0.295)
2006	-0.541 (0.485)	0.224 (0.549)	-1.353** (0.642)	-0.941* (0.522)	-0.141 (0.273)	0.281 (0.279)	-0.117 (0.296)	-0.153 (0.301)
2007	-0.728 (0.477)	-0.233 (0.568)	-0.654 (0.542)	-1.141** (0.522)	0.043 (0.281)	0.090 (0.296)	0.129 (0.299)	0.063 (0.303)
ch2	15.49	9.33	8.12	18.53	9.99	8.95	6.97	6.53
prob>ch2	0.078*	0.407	0.522	0.030**	0.352	0.442	0.641	0.686

주: 1998년(기준)의 수치는 각 능력 분위의 계수이며, 1999년부터의 수치는 능력과 당해 연도더미 교차항의 계수임. 자료가 2년의 패널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1999년은 1999년 임금근로자에서 2000년으로 이전하는 것을 나타냄. 추정에 포함된 변수는 <표 1> 모형 3과 동일.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오면서 그러한 경향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능력 5분위를 보면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교차항의 모든 계수가 음수(-)이고, 2004년부터는 그 절댓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전체 근로자에게서 얻어진 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표 6〉 임금근로 → 자영업 진입확률 (남성, 여성)

	남 성				여 성			
	능력1분위	능력2분위	능력4분위	능력5분위	능력1분위	능력2분위	능력4분위	능력5분위
1998 (기준)	0.813** (0.404)	-0.054 (0.472)	0.275 (0.439)	0.440 (0.421)	0.930 (0.702)	-0.378 (0.917)	0.852 (0.725)	1.065 (0.667)
1999	-0.622 (0.629)	0.031 (0.710)	-0.833 (0.733)	-0.433 (0.642)	-0.030 (1.133)	1.008 (1.313)	-0.055 (1.119)	0.226 (1.047)
2000	-0.954 (0.677)	0.526 (0.659)	0.056 (0.638)	-0.237 (0.646)	-0.367 (1.029)	0.911 (1.207)	-0.235 (1.008)	-1.075 (1.067)
2001	-1.697** (0.636)	0.177 (0.609)	-0.770 (0.635)	-0.747 (0.592)	-2.756** (1.049)	-0.768 (1.099)	-1.688** (0.919)	-1.400** (0.812)
2002	-0.737 (0.610)	0.191 (0.634)	0.194 (0.608)	-0.142 (0.597)	-1.111 (1.075)	0.935 (1.163)	-0.183 (1.012)	-0.150 (0.945)
2003	-0.852 (0.625)	0.314 (0.651)	-1.012 (0.716)	-0.482 (0.644)	-0.909 (0.857)	-0.015 (1.072)	-1.376 (0.967)	-0.904 (0.820)
2004	-0.334 (0.576)	0.221 (0.645)	-0.153 (0.613)	-0.312 (0.602)	-0.736 (0.806)	0.150 (1.024)	-1.373 (0.868)	0.055 (0.748)
2005	-0.540 (0.660)	0.106 (0.735)	-0.838 (0.791)	-0.593 (0.721)	-2.400* (1.333)	1.225 (1.100)	-0.801 (0.990)	-1.008 (0.986)
2006	0.017 (0.613)	0.476 (0.680)	-0.319 (0.716)	-0.613 (0.701)	-1.322 (0.863)	-2.136 (1.404)	-1.895** (0.935)	-2.252** (0.934)
2007	-0.187 (0.596)	0.497 (0.656)	-0.105 (0.658)	-0.870 (0.689)	-0.962 (1.084)	0.699 (1.204)	-0.258 (1.035)	-0.168 (0.981)
ch2	10.87	1.46	6.86	3.13	11.92	13.68	11.39	17.34
prob>ch2	0.285	0.997	0.652	0.959	0.218	0.134	0.250	0.044**

주: <표 5>와 동일.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여성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능력 1분위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확률은 2001년, 2005년에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으며, 남성에 비해서 교차항의 계수도 더 크게 나타난다. 즉 여성의 경우, 낮은 능력의 근로자가 자영업을 선택하는 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능력 1분위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와 일관성을 가진다. 즉,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얻어진 능력 1분위의 결과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효과로 보여진다.



한편 여성의 능력 5분위를 결과를 보면 p값이 0.044로 9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어 능력 5분위가 자영업 진입에 미치는 패턴에 전반적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교차항 계수가 음수(-)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01년과 2006년은 매우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도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최근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남성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1998년과 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의 관계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크게 나타나며, 낮은 능력 뿐 아니라 높은 능력 근로자의 자영업 진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IV. 능력과 자영업의 성과

상대적으로 능력이 낮은 사람과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한다면 과연 이들이 자영업을 시작한 후 성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능력이 낮은 사람의 성과는 낮고, 능력이 높은 사람의 성과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은 능력이 이전가능(transferable)할 경우에 타당하다. 즉, 임금근로자로서 능력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자로서도 능력이 낮다면 이들의 자영업 성과가 낮을 수 있겠지만 임금근로자로서의 능력은 낮지만 자영업자로서의 능력은 높다면 자영업 성과는 오히려 높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능력이 자영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이론적이기보다는 경험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패널에서 자영업의 성과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정보는 자영업자로서의 소득과 매출액이다. 따라서 이 두 변수를 이용하여 자영업의 성과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연도의 소득과 매출액 자료를 CPI를 이용해서 실질가치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들 변수는 0의 값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실제 금액(0을 포함)과 로그금액(0을 제외) 두 가지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앞의 <표 4>에서 보았듯이, 한 해에 임금근로자에서 다음 해에 자영업을 선택한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추정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감안될 필요가 있다.

<표 7>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종속변수로 모형의 추정 결과를 보여준다. 모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능력과 자영업 소득 사이에는 전반적으로 정(positive)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능력 1분위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이전했을 때는 가장 낮은 소득을 보이며, 능력 5분위 근로자가 자영업가가 되는 경우는 가장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표 3>은 로그소득함수를 추정할 경우 소득이 0인 경우를 포함한 경우인데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능력과 자영업 소득 사이에는 여전히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sup>12)</sup> 또한 <부표 4>는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한 추정 결과인데 본질적인 결론은 역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Joon and Wadensjö(2013)에 의해서도 확인되는데 다만 그들의

<표 7> 자영업자의 소득함수의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

	실제 소득		로그 소득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능력 1분위	<b>-30.98(13.60)**</b>	<b>-26.20(14.61)*</b>	<b>-0.175(0.089)*</b>	-0.139(0.089)
능력 2분위	2.91(15.08)	3.94(15.49)	0.037(0.092)	0.049(0.089)
능력 4분위	20.44(17.03)	26.51(16.58)	0.118(0.098)	<b>0.161(0.095)*</b>
능력 5분위	<b>64.30(18.65)**</b>	<b>67.21(18.88)**</b>	0.159(0.098)	<b>0.197(0.097)**</b>
여성	-46.12(11.70)**	-52.68(13.75)**	-0.372(0.068)**	-0.444(0.076)**
연령	1.29(0.67)*	0.96(0.63)	0.0003(0.004)	-0.002(0.003)
고등학교	56.15(14.16)**	47.87(13.24)**	0.382(0.093)**	0.332(0.089)**
전문대	88.78(21.17)**	83.60(23.65)**	0.435(0.123)**	0.390(0.129)**
대학	104.39(19.41)**	100.65(22.84)**	0.517(0.099)**	0.492(0.105)**
상수항	49.29(36.14)	34.24(43.47)	4.591(0.203)**	4.473(0.234)**
산업더미	포함 x	포함 o	포함 x	포함 o
직종더미	포함 x	포함 o	포함 x	포함 o
연도더미	포함 o	포함 o	포함 o	포함 o
R-Squared	0.162	0.221	0.166	0.256
표본수	610	610	595	595

주: 소득은 월 실질소득이며, 단위는 만원.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12) 한 심사자의 지적대로 소득이 0인 사람에게 1을 부여하고  $\ln(1)=0$ 의 값을 사용하여 이들을 표본에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이다.

경우는 스웨덴의 남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8>은 동일한 모형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추정한 결과다. 남성과 여성 모두 능력과 자영업 소득 사이에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남성의 경우,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만이 중위 능력자(능력 3분위)에 비하여 약 30%의 높은 소득을 보이는 반면, 다른 분위의 사람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능력 1분위에 속한 사람만이 중위자에 비하여 약 40%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 진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영업 소득에 있어서도 남녀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양상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성의 경우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데 비하여 이들의 소득은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직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고소득을 누린다. 여성의 경우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하는데 이들의 소득은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고 능력이 낮은 여성들만이 매우 낮은 소득을 벌고 있다. 즉 능력과 소득 사이의 관계는 비대칭적이라고 할

<표 8> 자영업자의 소득함수의 추정 결과 (남성, 여성)

	남 성		여 성	
	실제 소득	로그 소득	실제 소득	로그 소득
능력 1분위	-25.98(21.09)	-0.034(0.118)	<b>-63.18(32.18)**</b>	<b>-0.404(0.186)**</b>
능력 2분위	5.39(20.36)	0.143(0.112)	-9.40(34.37)	-0.217(0.199)
능력 4분위	9.58(22.96)	0.162(0.121)	-1.09(32.37)	-0.091(0.199)
능력 5분위	<b>91.15(30.64)**</b>	<b>0.300(0.133)**</b>	19.68(34.07)	-0.027(0.185)
연령	0.91(0.83)	-0.003(0.004)	0.96(1.05)	-0.004(0.007)
고등학교	61.13(18.62)**	0.258(0.111)**	56.30(19.21)**	0.426(0.147)**
전문대	106.40(30.07)**	0.376(0.155)**	74.48(41.71)*	0.407(0.242)*
대학	123.44(28.67)**	0.487(0.127)**	94.63(51.15)*	0.467(0.233)**
상수항	42.95(56.13)	4.631(0.283)**	-19.78(74.36)	4.135(0.467)**
R-Squared	0.227	0.198	0.260	0.296
표본수	394	380	216	215

주 : 모든 추정에는 산업, 직종, 연도더미가 포함되었음.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1차.

수 있다. 남성의 경우는 높은 능력 분위에서만 정(+)의 관계가, 여성의 경우는 낮은 능력 분위에서만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부표 5>는 성별 매출액에 대한 추정 결과인데 표본수가 너무 작아지는 관계로 대부분의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득에서 보여주는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자영업 성과와의 관계를 좀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t$ 시점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이  $t+1$ 년에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그 후 2년간 지속적으로 자영업을 한 경우 2년 후의 소득을 추정해 보았다. 따라서 앞의 결과는 1년 후의 성과인 데 반하여 <표 9>의 결과는 자영업을 시작한 후 2년째의 성과를 보여준다.

<표 9>를 보면 우선 <표 7>과 <표 8>에 비하여 표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2년 연속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표본을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 610명에서 466명으로 줄어들고 있어 자영업 2년차에 약 24%가 이탈하고 있다. 표본수가 줄어들어서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자의 소득은 능력과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로그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능력 5분위에 속한 사람은 자영업 1년차에 중위 능력자보다 약 19.7% 더 높은 소득을 버는 데 비해 자영업 2년차에는 19.9% 더 높은 소득을 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간이 흐름에 따른 능력과 소득과의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다. 남녀를 구분하여 본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앞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표본수의 급격한 감소로 능력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여성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능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추후 표본수가 충분한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재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임금근로자로서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영업자로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할 부분은 임금근로자로서의 능력과 자영업자로서의 능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영업자의 로그소득을 종속변수로 하는 <표 7>의 모형 2를 추정한 후 거기서 얻어진 잔차항과 임금근로자 당시 임금함수에서 얻어진 잔차, 즉 식 (1)의 잔차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두 잔차 사이의 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는 0.143이고 그리 높지는 않지만 정(+)의 관계로 나타나고 p-value는 0.0003으로 99%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금근로자로서의 능력과 자영업자로서의 능력 사이에는 어느정도 정(positive)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표 9〉 자영업 진입 2년 후의 소득함수의 추정 결과

	전 체		남 성		여 성	
	실제소득	로그소득	실제소득	로그소득	실제소득	로그소득
능력 1분위	<b>-66.81(30.27)**</b>	-0.121(0.110)	<b>-64.47(36.39)*</b>	-0.132(0.119)	-158.1(97.43)	-0.307(0.280)
능력 2분위	37.08(56.61)	0.100(0.104)	72.59(75.88)	0.166(0.110)	-89.13(83.82)	-0.053(0.268)
능력 4분위	- 6.90(30.05)	0.072(0.120)	12.33(33.52)	-0.018(0.130)	-81.11(98.65)	0.262(0.296)
능력 5분위	32.09(29.82)	<b>0.199(0.116)*</b>	47.34(37.93)	<b>0.247(0.126)**</b>	-69.69(94.10)	0.044(0.286)
여성	<b>-58.66(2860)**</b>	<b>-0.439(0.094)**</b>	-	-	-	-
연령	2.22(1.97)	-0.006(0.005)	2.60(2.32)	-0.008(0.005)	-0.15(2.95)	-0.005(0.012)
고등학교	55.69(26.58)**	0.312(0.101)**	92.76(36.95)**	0.299(0.121)**	-21.19(50.22)	0.349(0.213)
전문대	92.68(32.76)**	0.421(0.129)**	126.6(38.14)**	0.505(0.145)**	-33.79(90.97)	0.074(0.298)
대학	219.6(75.90)**	0.671(0.121)**	248.4(94.36)**	0.709(0.140)**	123.6(93.31)	0.476(0.277)*
상수항	-21.72(140.8)	4.888(0.285)**	-57.26(186.6)	5.171(0.318)**	132.3(194.9)	3.941(0.904)**
R-Squared	0.149	0.250	0.144	0.263	0.405	0.338
표본수	466	446	318	318	148	148

주: 모든 추정에는 산업, 직종, 연도더미가 포함되었음.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 V. 결 론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 비중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촉발시켰으며, 지금도 다양한 각도에서 자영업자의 성격을 규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여러 형태로 논의되어 온 자영업자의 이질성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금재호·조준모 2000; 이승렬 2008; 김우영 2009; 이병희 2012)에서는 주로 학력, 임금수준 등과 자영업자의 연결고리를 파악하려 하였다면 본 연구는 Joon and Wadensjo (2013)의 방법론에 따라 임금함수의 잔차가 자영업 선택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였고, 임금함수의 잔차를 근로자의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간주하였다.

자영업 선택 모형의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영업 진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영업자가 되는 사람은 능력이 아주 낮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Jona and Wadensjo (2013)가 스웨덴 남성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와 동일하다. 하지만 남녀를 구분할 경우 이러한 U자형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주로 능력이 낮은 사람이, 여성의 경우에는 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를 고용주와 순수자영업자로 구분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주로 능력이 높은 사람이 고용주, 낮은 사람은 순수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여성의 경우는 능력이 높은 사람이 순수자영업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달리, 능력이 높은 여성이 순수자영업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성의 경우 고용주보다는 순수자영업자가 현실적인 창업대안이 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1998년과 2008년 사이 능력과 자영업 진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능력이 낮은 사람의 자영업 진입이 줄어들고 동시에 능력이 높은 사람의 자영업 진입도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능력과 자영업 진입의 U자 형태를 약화시키는 것이며,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사람들이 능력 면에서 동질적이 되어 감을 암시한다.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능력과 자영업 진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있어서 높은 능력의 근로자가 자영업으로 진입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능력과 자영업 소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남녀 모두에 있어서 능력과 자영업 소득 사이에 대체로 정(+)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남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고능력자의 소득이 중위능력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에 여성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저능력자의 소득이 중위능력자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로서의 성과는 능력과 정(+)의 관계를 가지지만 대칭적은 아니며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영업 정책 면에서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능력 측면에서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자영업 정책도 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들에게 창업 동기를 부여하고 자영업자로서 잘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하여 비취업자가 되거나 다시 저임금근로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



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창업에 대한 정보, 영업을 필요한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훈련시키는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다. 한편 능력이 높은 근로자가 창업을 할 경우에는 이들은 이미 충분한 창업 동기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차원의 지원, 즉 재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 인력 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 남성과 여성은 자영업 진입과 성과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자영업 정책도 능력과 성(gender)을 고려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함수의 잔차를 능력으로 해석하고 능력의 양극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자영업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왜 이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왜 임금근로자로서 능력이 낮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고 자영업자로서의 성과도 낮은지, 왜 임금근로자로서 능력이 높은 사람이 임금근로를 포기하고 자영업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는 임금함수의 잔차를 일궁합의 질(matching quality)로 해석하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즉, 일궁합의 질이 낮은 사람이 자영업으로 이전한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왜 일궁합의 질이 높은 사람, 잔차의 크기가 큰 사람이 자영업자를 선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다른 각도나 풍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론은 비취업에서 자영업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비취업자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의 진입만을 다루었는데, 위험도 분석(hazard analysis)을 통하여 능력이 자영업의 지속 기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도 앞으로 흥미 있는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김재호·조준모, 「자영업자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23권 특별호 (2000): 81-108.



- 이승렬. 「자영업 부문 종사자의 유출입과 소득결정」. 이병희 외 편저. 『저소득 노동시장 분석』. pp. 29-65.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8.
- 김우영. 「자영업자의 이질성과 취약자영계층에 대한 정책과제」. 이병희 외 편저.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 연구』. pp. 71-112.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9.
- 이병희. 「자영업 구조조정과 임금근로 전환의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8권 1호 (2012): 191-215.
- Abraham, Katharine G., and Faber, Henry S. "Returns to Seniority in Union and Nonunion Jobs: A New Look at the Evidence."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42 (1) (1988): 3-19.
- Budig, Michelle J. "Intersections on the Road to Self-Employment: Gender, Family and Occupational Class." *Social Forces* 84 (4) (June 2006): 2223-2239.
- \_\_\_\_\_. "Gender, Self-Employment, and Earnings The Interlocking Structures of Family and Professional Status." *Gender & Society* 20 (6) (December 2006): 725-753.
- Joona, Pernilla A., and Wadensjö, Eskil. "The Best and the Brightest or the Least Successful? Self-employment Entry Among Male Wage-earners in Sweden." *Small Business Economics* 40 (2013): 155-172.
- Juhn, Chinhui, Murphy, Kevin M., and Pierce Brooks.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 (3) (June 1993): 410-442.
- Lazear, Edward P. "Entrepreneurship." *Journal of Labor Economics* 23 (4) (October 2005): 649-680.
- Lechmann, Daniel S. J., and Schnabel, Claus. "Are the Self-employed Really Jacks-of-all-trades? Testing the Assumptions and Implications of Lazear's Theory of Entrepreneurship with German Data." *Small Business Economics* (December 2012): online publication.
- Lee, Lung-Fei. "Unionism and Wage Rates: A Simultaneous Equations Model with Qualitative and Limited Dependent Variabl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9 (2) (June 1978): 415-433.
- Lemieux, Thomas. "Postsecondary Education and Increasing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96 (2) (May 2006): 195-199.

Plougmann, Peter, and Buhl, Sanne. "Self-Employment in Denmark-Trends and Policy." Canadian Conference on Self-Employment, manuscript, 1998.

Poschke, Markus. "Who Becomes an Entrepreneur? Occupational Choice and Firm Size Distribution." manuscript, McGill University, 2008.

## 부 록

〈부표 1〉 임금함수 및 자영업 선택함수 추정에 사용된 변수의 기초 통계

	전 체	남 성	여 성	변수의 성격
여성	0.407	0.000	1.000	성 더미변수
연령	39.259	40.429	37.552	연속변수(만 나이)
고등학교	0.374	0.387	0.356	학력 더미변수
전문대	0.136	0.128	0.148	학력 더미변수
대학	0.255	0.292	0.200	학력 더미변수
기혼	0.698	0.758	0.610	혼인여부 더미변수
상용직	0.785	0.821	0.732	상용직여부 더미변수
근속연수	5.549	6.801	3.722	연속변수(년수)
전기수도건설	0.108	0.166	0.023	산업더미
도소매	0.113	0.098	0.135	산업더미
운송	0.066	0.090	0.031	산업더미
음식료	0.055	0.019	0.107	산업더미
금융	0.061	0.051	0.074	산업더미
사업서비스	0.063	0.069	0.054	산업더미
공공행정	0.075	0.087	0.057	산업더미
교육	0.084	0.058	0.123	산업더미
의료	0.050	0.027	0.083	산업더미
기타산업	0.038	0.026	0.056	산업더미
사무직	0.080	0.039	0.141	직업더미
서비스직	0.061	0.042	0.089	직업더미
판매직	0.003	0.001	0.006	직업더미
숙련공	0.167	0.219	0.092	직업더미
장치관리자	0.123	0.159	0.072	직업더미
단순노무직	0.130	0.128	0.134	직업더미
실질임금	0.918	1.080	0.683	시간당 실질임금
자영업자	0.023	0.026	0.020	다음해 자영업 여부더미
표본수	30,055	17,836	12,219	

주: 위의 평균은 이웃하는 2개년의 패널에서 첫 해에 비농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위의 변수 이외에도 15개의 시도 변수와 9개의 연도더미 변수가 추정에 포함됨.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부표 2> 임금함수의 추정 결과 [종속변수=ln(시간당 실질임금)]

	전 체	남 성	여 성
여성	-0.289(0.011)**	-	-
연령	0.047(0.003)**	0.065(0.005)**	0.035(0.004)**
연령제곱	-0.001(0.000)**	-0.001(0.000)**	-0.000(0.000)**
고등학교	0.154(0.015)**	0.172(0.019)**	0.097(0.021)**
전문대	0.243(0.020)**	0.256(0.026)**	0.190(0.029)**
대학	0.427(0.020)**	0.413(0.025)**	0.443(0.031)**
기혼	0.090(0.011)**	0.157(0.016)**	0.041(0.017)**
상용직	0.082(0.012)**	0.055(0.019)**	0.098(0.015)**
근속연수	0.040(0.002)**	0.032(0.002)**	0.042(0.003)**
근속연수제곱	-0.001(0.000)**	-0.000(0.000)**	-0.001(0.000)**
전기수도건설	0.135(0.017)**	0.062(0.020)**	0.221(0.044)**
도소매	-0.051(0.019)**	-0.069(0.024)**	-0.003(0.029)
운송	-0.047(0.023)**	-0.130(0.027)**	0.133(0.039)**
음식료	-0.008(0.025)	-0.146(0.047)**	0.116(0.031)**
금융	0.174(0.022)**	0.074(0.028)**	0.323(0.032)**
사업서비스	0.031(0.021)	-0.021(0.027)	0.117(0.032)**
공공행정	0.035(0.019)*	-0.056(0.024)**	0.153(0.029)**
교육	0.143(0.021)**	0.103(0.034)**	0.207(0.029)**
의료	0.020(0.025)	-0.103(0.052)**	0.142(0.029)**
기타산업	0.059(0.030)*	-0.048(0.042)	0.142(0.040)**
사무직	-0.302(0.023)**	-0.156(0.034)**	-0.338(0.032)**
서비스직	-0.179(0.023)**	-0.244(0.034)**	-0.082(0.030)**
판매직	0.001(0.063)	0.061(0.125)	0.032(0.069)
숙련공	-0.191(0.016)**	-0.172(0.018)**	-0.236(0.030)**
장치관리자	-0.234(0.018)**	-0.224(0.021)**	-0.233(0.030)**
단순노무직	-0.401(0.019)**	-0.452(0.025)**	-0.302(0.030)**
상수항	-1.611(0.063)**	-1.974(0.095)**	-1.638(0.084)**
R-squared	0.522	0.482	0.475
표본수	30,055	17,836	12,219

주: 1) 추정은 이웃하는 2개년도 패널 자료의 첫 해에 비농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 식에는 위의 변수 이외에도 15개의 시도 변수와 9개의 연도더미 변수가 포함됨.  
 3) 지역과 연도가 포함된 결과는 요청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음.  
 4) 기준 변수는 중졸 이하, 제조업, 전문직, 서울, 1998년임.  
 5) 표준오차는 개인의 반복을 고려하여 그룹 내 상관관계를 조정하여 얻어진 것임.  
 \* 90%에서 유의, \*\*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부표 3〉 자영업자의 로그소득함수의 추정 결과 (소득 0 포함)

	전 체	남 성	여 성
능력 1분위	-0.059(0.152)	-0.090(0.197)	-0.073(0.243)
능력 2분위	0.138(0.149)	0.117(0.202)	0.274(0.235)
능력 4분위	0.158(0.161)	0.000(0.228)	<b>0.528(0.241)**</b>
능력 5분위	<b>0.293(0.151)*</b>	<b>0.387(0.215)*</b>	0.366(0.259)
여성	-0.259(0.104)**	-	-
연령	-0.004(0.006)	-0.009(0.008)	0.000(0.008)
고등학교	0.258(0.126)**	0.186(0.192)	0.422(0.150)**
전문대	0.487(0.159)**	0.501(0.221)**	0.554(0.247)**
대학	0.410(0.160)**	0.365(0.207)*	0.584(0.252)**
상수항	4.338(0.399)**	4.739(0.509)**	3.637(0.575)**
R-Squared	0.142	0.151	0.266
표본수	610	394	216

주: 1) 모든 추정에는 산업, 직종, 연도더미가 포함되었음.

2) 소득이 0인 경우 로그 값은 0으로 대체하였음.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부표 4〉 자영업자의 매출액함수의 추정 결과 (전체 근로자)

	실제 매출액		로그 매출액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능력 1분위	-1443.70(1227.76)	-38.89(1385.63)	<b>-0.391(0.197)**</b>	-0.268(0.202)
능력 2분위	279.26(1356.38)	42.66(1433.71)	0.191(0.186)	0.155(0.185)
능력 4분위	<b>6332.62(3768.65)*</b>	6252.64(3863.07)	<b>0.419(0.221)*</b>	<b>0.369(0.218)*</b>
능력 5분위	5360.91(3285.32)	<b>6522.80(3316.77)**</b>	0.175(0.214)	0.253(0.211)
여성	-2646.45(1164.73)**	-2406.22(1362.81)*	-0.502(0.146)**	-0.525(0.166)**
연령	145.00(91.99)	157.06(101.08)	0.006(0.007)	0.009(0.008)
고등학교	3388.74(1778.45)*	2959.19(1493.05)**	0.507(0.171)**	0.489(0.182)**
전문대	4923.40(2285.98)**	3840.45(1987.15)*	0.541(0.230)**	0.518(0.239)**
대학	8337.60(3935.84)**	6880.24(3889.94)*	0.542(0.224)**	0.643(0.247)**
상수항	-3162.81(5129.63)	4255.32(6299.64)	7.726(0.489)**	7.341(0.553)**
산업더미	포함 X	포함 O	포함 X	포함 O
직종더미	포함 X	포함 O	포함 X	포함 O
연도더미	포함 O	포함 O	포함 O	포함 O
R-Squared	0.092	0.139	0.152	0.230
표본수	400	400	380	380

주: 매출액은 연 실질 매출액이며, 단위는 만원.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부표 5> 자영업자의 매출액 함수의 추정 결과 (남성, 여성)

	남 성		여 성	
	실제 매출액	로그 매출액	실제 매출액	로그 매출액
능력 1분위	-1390.52(2065.33)	<b>-0.563(0.270)**</b>	-459.70(1307.86)	-0.274(0.344)
능력 2분위	-107.71(2230.90)	-0.154(0.246)	352.60(1787.13)	-0.028(0.398)
능력 4분위	7644.32(5451.69)	0.208(0.293)	2008.44(2506.97)	-0.002(0.457)
능력 5분위	6704.29(5509.50)	-0.033(0.303)	1896.13(1826.09)	0.233(0.420)
연령	197.07( 132.03)	0.018(0.010)*	-21.10(63.83)	-0.022(0.013)*
고등학교	4073.38(2676.01)	0.426(0.227)*	1612.70(1663.87)	0.653(0.325)**
전문대	5501.89(4037.12)	0.715(0.317)**	-408.80(1843.87)	-0.030(0.411)
대학	8405.27(4354.18)*	0.746(0.286)**	4432.76(4258.16)	0.195(0.470)
상수항	4079.30(6891.69)	7.255(0.650)**	1064.63(4810.66)	7.208(0.900)**
R-Squared	0.157	0.203	0.243	0.400
표본수	259	243	141	137

주: 모든 추정에는 산업, 직종, 연도더미가 포함되었음.

\*는 90%에서 유의, \*\*는 95%에서 유의.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부도 1] 임금10분위별 자영업 비중



자료: 한국노동패널 1-11차.

abstract

---

## Heterogeneity of Workers and the Entry into Self-employment

- Focusing on the Entry of Wage Workers into  
Self-Employment -

Woo-Yung Kim

This study examines how the unobserved heterogeneity of workers, measured by residuals of the wage equation, affects the entry into self-employment using KLIPS 1998-2008. Following Jona and Wadensjö(2013), we treat the residuals as unobserved ability and find that both workers with higher and lower ability are more likely to become self-employed. However, this U-shape relationship no longer holds when the sample is divided into males and females. The study also find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bility and entry into self-employment has changed over time, and that ability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formance of self-employed.

Keywords : unobserved heterogeneity, entry into self-employment